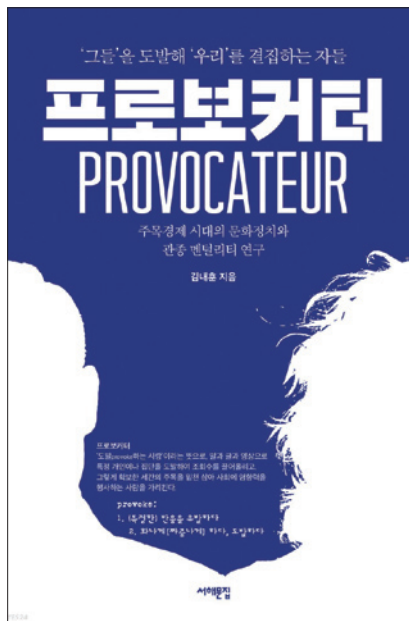


책으로 세상을 읽다 ‘도발’로 사회를 갈라놓는 그들「프로보커터」

글. 이하민 북칼럼니스트 / 前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상상프로젝트 기자

‘아모스 이’(Amos Yee : 余澎杉)라는 이름을 들어보았는가.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그의 고국인 싱가포르와 서구 선진국에서는 한때 유명세를 끌었던 인물이다. 불과 16세 때부터 유튜버, 블로거로 영향력을 떨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인기를 얻기 위해 만드는 콘텐츠는 특정 인종, 종교에 대한 도발과 혐오로 점철된 것이었다. 그는 다수의 세계 시민을 적으로 돌리면서 관심을 끌어들이는 한편, 자신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에게는 ‘표현의 자유 수호자’로 추앙받았다. 그의 몰락은 한순간이었다. 미국으로 망



「프로보커터」 김내훈 지음 / 출처 : YES24

명한 후, 예전보다 주목도가 떨어지자 ‘소아성애’라는 사회적 금도를 옹호하는데 이르렀다. 결국 아모스 이는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은 폐쇄되었다. 관심으로 먹고살았던 그에게 소셜미디어 폐쇄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 없었다. 그의 나이 21살이었다.

평범했던 청년의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병폐가 축약되어 있다.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인 김내훈은 우리 시대를 ‘주목이 가치를 규정하는 관중(관심중자)의 시대’라고 규정한다. 관심이 곧 돈이 되는 세상에서, 더 많은 주목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행태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김내훈은 이러한 사회현상을 분석해 올봄 <프로보커터>라는 책을 발간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평소 포폴리즘, 밈(meme), 정치 유튜브, 인터넷 트롤링 등에 관심이 많았던 저자는 앞으



아모스 이는 주목 경제 시대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로 공론장이 프로보커터에 의해 오염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프로보커터’라는 단어가 생소할 것 같다. 간단히 밝히자면 ‘도발(provoke)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말이나 행동으로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을 도발하여 조회 수를 높이고, 그렇게 확보한 주목을 밀착 삼아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저자는 프로보커터가 양산되는 문화 정치적 작동 원리를 분석한 후, 실제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프로보커터의 사례를 소개한다.



주목 경제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오피니언 리더에 사유를 외주화한다. 이후 맹목적으로 그들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 출처 : Freepik

줄거리 - 주목 경제가 일으킨 나비효과와 ‘프로보커터’

저자는 책 초반에 ‘주목 경제’에 관해서 언급한다. 주목과 관심을 얻기 위한 행보가 곧 경제활동이 되는 시대를 일컫는다. 관심이 곧 돈이 되는 상황에서 이목을 끌기 위한 정보 공급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그런 과정에서 콘텐츠가 점점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큰 비용을 들여 ‘웰메이드’ 상품을 생산하는 것 자체는 더 이상 돈이 되지 않는다. 저자의 말을 빌리



면 ‘악화(자극적 콘텐츠)가 양화(양질의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다.

저자는 주목 경제의 시대적 기반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화적 현상을 설명한다. 대표적인 것이 ‘트롤링’이다. 난데없이 난입해 휘방을 놓거나, 도발적인 발언으로 불특정 다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다. 문제는 트롤링이 점차 정치화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강화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저자는 이러한 양태에 ‘밈’이라는 문화 전승 수단이 강력한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주목과 관심을 끌기 위한 행보는 소셜미디어에 의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출처 : Pexels

한편, ‘사유의 외주화’는 주목 경제의 또 다른 현상이다. 주목 경제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필터 버블’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관심사와 부합하는 콘텐츠만 노출되도록 만든다. 이런 환경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설파하는 ‘정치 유튜버’들이 부상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자기 생각



왼쪽부터 진중권, 서민, 김어준

을 유튜버들의 주장과 일치 시켜 버린다. 이것이 바로 사유의 외주화다. 그런데 정치 유튜브 역시 주목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동적, 감정적인 발언을 일삼는다. 수용자는 이러한 감정을 그대로 학습해 체화한다.

책 중반까지 저자가 분석한 문화 정치 지형은 그야말로 ‘프로보커터’가 등장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형성한다. 저자는 한국 좌, 우파 진영에서 프로보커터가 된 실제 인물들을 나열하며 이들의 도발과 음모론적 선동을 강하게 비판한다. 특히 진중권, 서민, 김어준을 주요 프로보커터로 규정하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의인화하여 특정 집단을 악의 근원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었다.

저자는 절대 악을 상정한 선동과 도발이 호소력을 얻는 이유로 정치에 대한 신뢰 부재를 지적하며, 프로보커터들이 이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이들이 벌이는 ‘망동’을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음을 답답해한다. 결국은 시민 스스로가 혐오의 언어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이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프로보커터 현상 파헤치기

이 책은 ‘프로보커터’라는 생소한 개념을 주제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독자들에게 더욱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저자는 싱가포르 출신 유튜버 ‘아모스 이’의 짧은 스토리를 서두에 제시하면서 주제를 환기한다. 젊은 청년이 저지른 도발과 혐오 발언, 엽기적인 기행을 소개하며, 주목 경제 시대의 부작용인 ‘프로보커터’의 등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필자는 이 대목을 읽으며 비슷한 사례의 국내 크리에이터들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아모스 이의 사례를 맨 처음에 제시한 것

은 생소한 개념을 단번에 현실적 문제로 와 닿게 해준 저자의 절묘한 한 수였다.

저자는 미디어 문화 연구라는 전공을 살려 프로보커터가 등장한 배경을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낸다. 특히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을 트롤링과 연관 지어 설명한 부분이 흥미롭다. 여기서 밈은 은어나 유행어 정도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 현재 한국 뉴미디어 환경은 ‘밈’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어떤 콘텐츠든 밈을 적용하여 새로운 흥미요소를 만들어낸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소속감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문화적 역동성을 증진해준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저자는 밈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바로 밈의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속성이 복잡한 사회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혹은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특정 집단에 대한 트롤링으로 전용되면 손쉽게 희생양을 만들어버린다. 저자는 그 예로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OK Boomer!’(한



‘OK, Boomer!’라는 밈은 기성세대에 대한 비난 혹은 원망을 담고 있다.

국식으로는 ‘네 다음 곧대’)를 든다. 정치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 윗세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밈이다.

이처럼 아무런 사유나 성찰 없이 유행하는 밈의 부정적 단면을 제시하고 경고한 대목에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돋보인다.

프로보커터의 도발은 특정 집단에 대한 원색적 비난으로 향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가치 및 문화의 공존을 저해한다. 특정 사상이나 이념을 가진 부류를 ‘악마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현대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자유주의’가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한다. 책 전반에 걸쳐 ‘자유주의’ 혹은 ‘리버럴’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오늘날 자유주의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책에서는 ‘다양성과 상호 공존 및 탈권위’를 중시한다는 맥락으로 활용된 것 같다. 재밌는 점은 프로보커터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표현의 자유’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역시 고전적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저자가 주장하는 ‘자유주의’와 프로보커터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그래서 저자는 프로보커터의 자유주의를 ‘자유지상주의’로 구분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유주의는 그 자체로 다의적인 개념이며, 나라마다 활용되는 맥락도 다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선 더욱 혼란스럽게 이해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저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자유주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의 금과옥조인 ‘표현의 자유’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평소 자유주의 및 정치사상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책 전반에 걸쳐 제시된 프로보커터의 조건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상대방에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사로 도발하는 것, 둘째, 적과 우리 편을 구분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셋째, 이를 통해 얻은 세간의 주목을 밑천으로 사회적 및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국내 대표적인

몇몇 프로보커터들을 제시한다. 진중권, 서민, 김어준 등 유명 인사들이다. 대학원생 입장에서 이들을 직접 거론한 것도 대단하지만, 성역 없이 매섭게 비판하는 그의 대담함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각 인물에 대한 풍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는 연구자다운 자세도 돋보인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그가 제시한 프로보커터의 사례는 앞서 언급한 프로보커터의 조건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 먼저 진중권은 적과 우리 편을 구분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지 않는다. 그는 좌, 우 안 가리고 모두 공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자기 편을 만들 수 없다. 즉 프로보커터의 두 번째 요건에서 제외됨에도, 저자는 진중권을 프로보커터라 칭했다.

만약 도발이나 조롱을 한다는 것만으로 프로보커터로 규정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냉소적 풍자를 도발, 트롤링, 비아냥 등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는 것이다. 풍자도 때에 따라 조금 과장될 수 있고, 상대 진영에게는 도발처럼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저자가 주장한 ‘도발’의 범주에는 일반적인 풍자의 속성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저자가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촌철살인의 풍자와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논객도 한순간에 프로보커터로 낙인찍힐 수 있다.

저자 역시 이러한 모호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처음에 진중권과 서민이 도발과 비아냥으로 명성을 얻었다고 말한다. 지식인으로서 ‘콘



출처 : Freepik

텐츠'가 아닌 프로보커터의 '퍼모먼스'로 커리어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저자는 이 두 명이 원래는 비평가, 지식인의 면모를 보였다고 입장을 번복한다. 진중권과 서민에 대한 저자의 불확실한 정의는 도발과 풍자의 경계를 완벽히 정립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닐까.

이로 인해 저자가 제시한 프로보커터의 구성 요건이 다소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나마 가시적인 것이 마지막 '정치적 및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인데, 여기서 '영향력'은 앞의 두 요소가 완성돼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도발'과 '지지층 결집 여부'가 완벽히 정의되지 않으면, 뒤따르는 정치적 영향력의 의미 역시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말과 행동은 수학이 아니므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필자가 비판하는 이유는 이 대목이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표현의 자유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위험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혹여 내 발언이 프로보커터로 비칠 것을 우려해,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저자가 이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다.

프로보커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결론에서 저자는 앞으로 프로보커터의 '망동'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표현의 영역에 속하기 때



책 <프로보커터>는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을 돌아봤을 때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무엇보다 '프로보커터'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기에

더욱 많은 독자들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문에 법적 제재 수단도 마땅치 않다. 정말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저자는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대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바로 '정치의 신뢰 회복'이다. 저자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불안과 혼란을 낳고, 중국엔 집단 혐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프로보커터 등장의 근본 원인이 정치 불신이라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치 권력은 프로보커터의 선동적 발언을 인용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도(正道)를 표방하고, 갈등을 봉합해 화합을 이뤄내려는 정치인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책 <프로보커터>는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을 돌아봤을 때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성별, 세대, 종교, 노사, 보수와 진보 등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자신들의 결집을 도모하는 데만 혈안이다.

저자 김내훈은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도발' 경쟁의 멈출 줄 모르는 폭주에 제동을 걸고자 했다. 일부 약간의 논리적인 어색함을 제외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게 구성된 책이다. 무엇보다 '프로보커터'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기에 더욱 많은 독자들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도 모르게 프로보커터가 된 이들에게는 성찰의 기회를, 프로보커터의 선동에 휘둘리던 우리에게서는 경각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